광주·전남 산단 가동률 양극화

평균 가동률 광주 88%·전남 84%…655개 업체 가동 멈춰

경기 침체·高 분양가 등 원인…국가 차원 대책 마련 절실

광주·전남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가동률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업체 가동률이 100%에 이른 산단도 있지만 절반에 그친 산단도 5곳에 달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경기침체에 따른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의 '산업단지통계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지역 9개 산단과 전남 100개 산단 입주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광주 88%, 전남 84%로 전국 평균(9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산단의 경우 총 분양률 95.8%를 기록한 가운데 입주계약을 한 2545개 업체 중 301개 업체가 가동을 멈췄다. 93.8% 분양률을 기록한 전남의 경우 2194개 계약업체 가운데 354개 업체가 아예 가동되지 않았다. 특히 광주의 2개 국가산단(빛그린, 첨단과학)과 전남의 33개 일반산단은 나란히 68%의 가동률에 그쳤다.

가동률 100%를 기록중인 산단은 광주 진곡·송담 등 2곳이었으며 전남에선 나주 문평, 무안 삼향, 함평 학교 등 18곳이었다. 하지만 광주 진곡은 분양률이 55%에 불과하고 전남은 5곳을 빼고는 모두 소규모 농공단지다. 가동률이 전국 산단(1082개)의 평균보다 높은 곳은 광주 3곳, 전남 30개에 그쳤다.

광양 신금과 영광 대마, 고흥 청정식품(옛 동강), 함평 해보, 무안 청계2 등 5곳은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양 신금산단은 분양률이 43%에 그쳤고, 입주계약업체 41곳 중 가동중인 업체는 고작 2곳이었다. 영광 대마전기자동차단지도 분양률 70%에 입주계약 35개 업체 가운데 실제 가동중인 곳은 6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고흥 청정식품단지는 분양은 100% 완료됐으나 계약업체 19곳 중 가동중인 곳은 8곳에 그쳤다. 함평 해보와 무안 청계2도 각각 47%와 5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단지 내 가동중인 업체가 한 곳뿐인 산단도 있었다. 나주 금천농공단지와 곡성 입면, 해남 화원조선, 장흥농공단지, 영암 삼호 등 5곳이다.

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와 달리 '개점 휴업' 산단이 적지 않은데는 국내 경기 장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고(高) 분양가, 규모 있는 기업들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연쇄 조업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동부권의 한 산단 관계자는 "분양가가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 기업들이 입주를 주저하는 것 같다"며 "분양가 조정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률이 10대%에 그친 영광의 한 산단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내려오는 업체가 거의 없고, 광주 인근에 빛그린, 동함평 산단까지 조성되면서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신규 아파트 10월까지 4234가구 입주

국토교통부는 오는 8~10월 3개월간 광주·전남지역 신규 아파트에 4234가구가 입주한다고 20일 밝혔다.

월별로 살펴보면 8월에는 광주 광산구 수완동 아뜨리움 64가구, 광산구 쌍암동 AM-CITY 센터럴파크 275가구, 해남 파크사이드 263가구 등이다. 9월에는 광주 남구 봉선동 봉선지웰 181가구, 나주시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B-5 946가구, 목포시 죽교동 신안 실크밸리 7차 657가구 등이다. 10월에는 목포시 상동 광신프로그레스 623가구, 목포시 용해7차 골드클래스 319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기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7만3399가구로(조합 물량 제외)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3만1804가구, 지방 4만1595가구가 입주한다. /임동률기자exian@

금호타이어 경영진 "원만한 단체교섭 부탁합니다" 20일 오전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광주공장 정문에서 출근하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원만한 단체교섭 진행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최근 진행중인 사측과의 올해 단체교섭 협상을 결렬시킨 바 있다. 노조는 20~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하며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청년 일자리 확충 경제·사회 정책 통합 필요"

광주상의 청년고용포럼 토론회

일자리·주거 등 원스톱 지원해야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선 기존 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해 틀을 깨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20일 오후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광주 청년 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46차 광주고용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고용전문가 등 관계자 60명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광주지역 청년 일자리 늘리기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기존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5가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기존의 경제정책 중심에서 사회정책과의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구직 이행경로를 다양화하고, 청년위원회의 정책결정권을 강화하는 등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 협업공간의 공적지원 필요성과 구직의지를 상실한 '청년 니트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원 한국창직협회 회장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광주의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광주 청년들이 기술 혁신형 창업이나 창직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지원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1시·구 1창직 실현과 청년 창업·창직분야 교육훈련 및 네트워킹 기반 마련, 창직 지원 전담조직·기구 설치, 창업·창직 멘토단 구성 등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자로 나선 김은애 송원대 인재개발원 교수는 "정 교수가 제안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일자리와 재정, 주거 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형주 문화도시공작소 인유 대표는 "지금까지의 고용정책은 '일자리창출'이 선택적으로 강조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고용률을 제고해 왔다"며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 유지로 정책의 중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73.31 (-3.48) ▼ 금리 (국고채 3년) 1.78% (-0.01)

▲ 코스닥 782.64 (+9.41) ▲ 환율 (USD) 1152.10원 (+4.60)

'아파텔' 상무 유탑 유블레스 트윈시티 주목

상무지구 37층 330가구

27~28일 청약 접수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아파텔'이 주목받고 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아파트의 편리함에 오피스텔의 장점이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 설계 및 통풍과 채광을 고려한 판상형 구조 등 기존 오피스텔에서 보기 힘든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이 때문에 투자자의 수익성이 기존 오피스텔보다 높다는 게 주택업계의 설명이다.

광주에도 이런 장점을 가진 아파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유탑건설이 24일 견본주택을 개소하고, '상무 유탑 유블레스 트윈시티'〈투시도〉를 공급한다.

상무 유탑 유블레스 트윈시티는 광주 최초로 37층의 초고층 높이로 건설되며 총 330가구가 분양된다.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특화된 포베이(4-BAY) 평면설계 등 아파트의 장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소비자가 변형 벽체를 선택할 수 있고, 84㎡ 단일면적을 7가지 타입으로 구성한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유탑건설 관계자는 "상무 유탑 유블레스 트윈시티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분양 전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 유탑 유블레스 트윈시티는 27~28일 청약에 이어 8월 3~5일 계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농성역 7번 출입구 앞에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감사이벤트

내달 14일까지 신규 이용 대상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신)는 내달 14일까지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는 사업장 및 업무대행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연금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란 유선, 팩스, 우편, 방문을 대신하는 전자민원서비스로 인터넷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 중 15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며, 당첨자는 다음달 25일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https : //edi.nps.or.kr)를 통해 발표한다. 신규 이용을 원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https : //edi.nps.or.kr)에 접속해 보건복지부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로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가능하다.

업무대행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업무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고, 지정 승인 후 업무대행 기관 공인인증서로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4대보험 공통신고 업무(입사, 퇴사 등), 국민연금 고유신고 업무(내용변경, 납부예외 등) 등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업무관련 통지문서 및 국민연금 관련 유익한 정보자료도 받아 볼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